건강 칼럼

삼차신경통

김 이 곤
구암한의원장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minal nerve)의 이상으로 인해서 삼차신경이 분포하는 얼굴 한쪽에 칼로 도려내는 통증이나 전기 감전이 된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반복적, 발작적,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삼차신경통에 대해 알아 본다.

▲ 원인

삼차신경이 인접한 동맥이나 정맥에 의해 삼차신경의 신경절 또는 신경근 부위가 압박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종양, 콜레스테린종, 골종, 동맥류 및 혈관기형 등과 같은 두개내 병소의 압박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각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세포의 과흥분이 점화점이 돼 낮은 역치자극이 감각신경의 흥분을 유도하게 된다.

▲ 증상

찌르는 듯하고 쏘는 듯한 통증이 수 초간 혹은 수분간 급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통증 양상은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찌르는 듯이 심하며 강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서 수 초 내에, 길어도 2분 내에 사라지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참기 어려운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움찔거리게 되는데, 이를 유통성 틱이라고도 한다.

통증이 얼굴 한쪽의 광대뼈 부위 상악분지 또는 턱과 입술 부위 하악분지의 지배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 주기적인 발작은 수 주간 밤낮으로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발작은 자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 씹는 동작, 미소 짓는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 예후

매년 인구 10만 명당 4~5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중년과 노년에 주로 발병하고 60% 정도가 여성에게 발생한다. 갑자기 발병하지만 호전되기까지는 수 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호전되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 치료

삼차신경통의 일차 선택약인 카르바마제핀은 항경련제로 초기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나 심혈관계, 피부, 신경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혈계에 나타나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기능 억제나 간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장기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경락의 관점에서 삼차신경 분포 부위와 관련된 경혈자리에 침, 뜸, 부항 이침 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진통, 소염, 활혈 시키는 봉약침은 삼차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좋다.

한약으로는 통증제어에 자주 처방되는 오령산(五苓散)과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사용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위 중 거리 행진하는 미 영화계 종사자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영화계 종사자들이 거물 영화 제작자 스콧 루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을 행진하고 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스콧 루딘의 상습 학대에 항의하고 소수민족과 장애인들의 더 많은 참여와 배우조합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브로드웨이를 행진했다.

하트 날리는 러시아 배우 이리나 베즈루코바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3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배우 이리나 베즈루코바가 도착해 하트를 날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지하실'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 상영된다.

사 설

신통일한국 시대 컨퍼런스 의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신통일한국 컨퍼런스가 최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함께 열어가는 신통일한국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500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평화통일 전략' 그리고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등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신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UPF 5개 지구 회장의 주제별 강연도 진행됐다.

문훈숙 회장은 "참가정, 남북통일, 세계평화는 서로 이어져 있으며 이 비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재 호남?제주지구 회장은 "좌익, 우익을 넘어 두익을 통한 통합 세력을 구축하고 나눔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운동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재 회장은"열린 사고로 평화 세력, 그리고 안보 세력과 소통하여 건강한 진보로부터 합리적인 보수를 끌어안는 두익사상으로 나아가야 신통일한국에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UPF는 공생?공영?공의주의를 바탕으로 시, 군·구 단위에서 섭리기관, 평화대사 협의회, 산수원 애국회, 피스로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다짐했다.

특히 평화 비전을 실천할 평화애원을 확보해 씽크 탱크 2022와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통일한국을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탤런트 정혜선씨가 UPF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평소 UPF의 평화운동에 공감하고 참여해온 그는 앞으로 다양한 UPF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신통일한국은 단순한 정치, 경제 체제의 통일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정보공사 LX의 갈등

옛 대한지적공사였던 국토정보공사 LX가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LX홀딩스와 회사 이름을 놓고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LX라는 영문 이름을 선포한 뒤 국내외에 인지도를 쌓아왔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 정부기관이다. LG에서 LX 사명을 쓰는 것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토정보공사 측은 "해외에서 보면 국토정보공사가 LX홀딩스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구태여 LX라는 이름을 써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한다. 여론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뒤늦게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LG의 집착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명 혼동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와 맞물리면서 준 정부기관이 왜 영문명을 고집하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업 영역이 명확하게 다른 데 공사가 억지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다.

대화로 풀자는 LG 측은 국토정보공사의 강경 대응에 난처한 입장이다. LG의 대화 제안을 놓고도 의견차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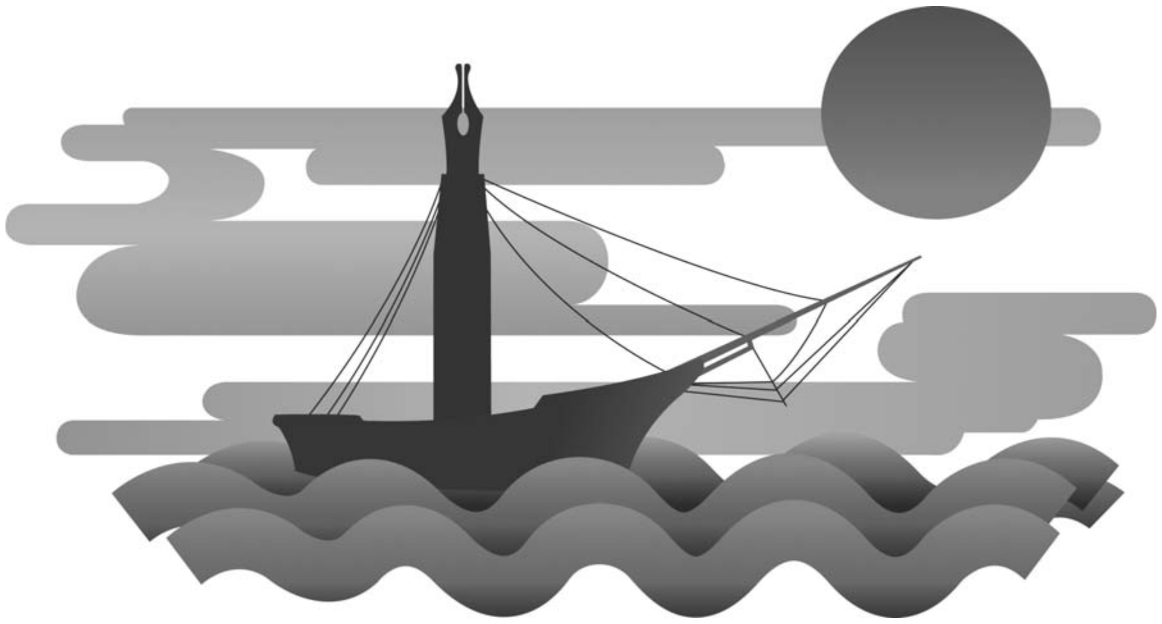
LG 측은 대표 간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토정보공사는 실무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LG는 결정권자가 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논의가 된다며 사장이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LG측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LX그룹 출범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에 여러 소송전을 경험한 LG가 법률 검토를 끝냈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도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여론전 확대와 더불어 법정 싸움을 피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